

행복북구문화재단 인권경영선언문

우리는 구민 중심의 지역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북구의 역사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나아가는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세계인권선언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이를 위해 행복북구문화재단의 모든 구성원과 이해관계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하고 국내외 기준과 규범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문화다양성·노동·환경·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국적, 성별, 인종, 학력, 지역, 장애, 나이,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윤리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의 고용에서 국내외 기준과 규범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에게 건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권과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목표를 내세우거나 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과 협력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재단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절차를 취한다.

행복북구문화재단 임직원 일동